

임원 승진 줄고 인재 영입... 철강업계, 성장동력 확보 방점

전년 보다 임원 승진자 감소
기술제고 등 기업 경쟁력 확보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대응'

국내 철강사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철강 업계 만형인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진행한 임원 인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철강 산업 융합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 대응과 성장동력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임원 승진자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각 사별로는 포스코 62명, 현대제철 16명, 동국제강 13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 임원 승진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하면서 신규 사업 혹은 기술제고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철강업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임원 인사를 발표한 포스코는 지난 6일 '성과·현장·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에 김지용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김 원장은 유타대 물리야금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다. 포스코 신소재사업실장과 인도네시아 PT.KP 법인장,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장에는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양 팀장은 포스코 사회공헌실장, HR혁신실장, 기업시민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쳤다. 또 현장 출신 명장들도 임원으로 승진 발령했다. 손병락, 조길동, 정규점 전문가를 각각 상무급으로 신규 선임했다. 이들은 전동기, 제강, 전기 등 각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은 현장 경험과 기술력, 애사심을 바탕으로 수해 복구 작업과 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 강화에도 속도를 높인다. 본업인 철강 사업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사업의 기술 고

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이차전지소재연구소장에 홍영준 전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장을 영입했다. 홍 소장은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했다. LG화학 재료사업부문장, 기술기획담당 전무, 미래기술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포스코그룹은 신성장사업 분야 스타급 연구원을 승진 발탁했다. 김정환 포스코케미칼 양극재연구그룹장, 이현영 음극재연구그룹장, 윤일용 포스코ICT AI기술그룹장, 윤석준 로봇사업추진반장 등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포스코그룹은 트레이딩과 에너지사업 합병법인인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부문장직을 신설하고 트레이딩과 에너지 부문장에 각각 이계인 철강1

본부장, 이진혁 에너지기획본부장을 승진 발령했다.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전무 4명, 상무 12명이 승진했다. 열연냉연사업부장이었던 김원배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며 고로사업본부장을 맡았다. 또 이성수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기로사업본부를 이끈다. 이 전무는 모빌리티 소재사업본부와 모빌리티부품사업부를 맡았었다. 신임 모빌리티소재사업본부장은 열연냉연영업실장인 최상건 상무가 맡는다. 연구개발본부장에는 이보룡 전무가 임명됐다. 이 전무는 당진 안전보건환경담당(상무)을 맡아왔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선제적 인적 쇄신과 함께 중장기 사업전략,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주 회장의 장남인 '오너 4세' 장선의 상무가 전무로 승진,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장 신임 전무는 지난 2년 동안 인천공장 생산담당을 맡아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번 승진과 함께 구매실장으로 임명돼 본사에서 근무한다. 이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설비투자기획과 동국제강 주요 공장 안정화를 주도한 최삼영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으며 동국제강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총 2명의 임원 승진을 실시했다. 정보기술(IT) 계열사인 동국시스템즈는 미래 준비를 위해 총 1명의 임원 승진을 단행했다. 또 동국제강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해 과격적인 변화를 준비하기보다 안정을 이어가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철강업계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1% 감소한 영업이익 92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은 54.9% 줄어든 3730억원, 동국제강은 50.2% 감소한 1485억원을 거뒀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66.79% 줄어든 7865억원이다. 현대제철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854억원으로 전년 4분기 대비 75.99%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알뜰폰업계, 중간요금제·e심으로 '승부수'

5G 중간요금제, 타 업체와 차별화
e심 시장 활성화 위한 혜택 확대

알뜰폰업체들이 올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한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e심 서비스를 강화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KT엠모바일은 국내 최초로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

다. SK텔레콤은 20~30GB 데이터로 구성된 5G 중간요금제 도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LG헬로비전도 e심 서비스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영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토스도 토스 앱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를 론칭할 예정이다. KG모빌리언스도 조만간 알뜰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어서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알뜰폰업체들은 타 업체의 요금제와

차별화되는 중간요금제 출시와 e심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KT 엠모바일은 e심 특화 요금제 7종도 출시하는 등 e심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T엠모바일은 5G 요금제를 월 2만 원대 쓸 수 있는 '5G 통화 맘껏 20GB'와 '5G 데이터 총본 20GB/200분' 요금제 2종을 신규 출시했다. 이는 알뜰폰 5G 시장 활성화 정책

과 지난해 9월 출시한 5G 요금제의 후속 라인업 확대의 일환이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MZ 세대의 비중이 52%를 기록했다. MZ세대 중심 5G 요금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체감해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T도 이달 말까지 알뜰폰에 20~30GB 데이터로 구성된 5G 중간요금제를 도매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LG헬로비전은 송구영 대표가 지난 2일 신년사를 진행하며 하나의 중점과

제로 알뜰폰 e심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올해 e심 서비스 강화가 발표된 만큼 e심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e심 고객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헬로비전측은 "MZ 세대가 중심이 돼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데, 주로 직영몰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며 "알뜰폰 e심 가입 근접성과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새해 e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과기부, '메타버스 테크데이' 열고 글로벌 네트워킹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 참여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을 계기로 국내 메타버스·미디어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내 유망 메타버스·미디어 기업과 글로벌 투자사,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메타버스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테크데이는 CES 2023 참가기업을 비롯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은 메타버스·미디어 분야 기업을 초



(왼쪽부터)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이드 바카디아 퀘이크 전무,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티무르 다우드포타 2080벤처스 CEO, 최선 마인드 더 브릿지 아시아 총괄본부장, 허은아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청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기업·기관 간 업무협약식(5건), 기업설명회(7개 기업), 투자상담회로 구성된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에서는 국내 기업 ㈜맥스 트가 뇌신경 신호 기반 확장현실(XR) 기기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기업 와이즈이어(Wisear)와 업무협약

을 통해 인체 감각신경 기능과 연동하는 이어폰 내장 증강현실(AR) 안경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미국의 퀘이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증강현실(AR) 안경 설계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AR2 1세대 플랫폼'과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플랫폼 '스냅드래곤 스페이스'를 국내 메타버스 기업에 제공해 시각위치확인서비스(VPS) 기반 증강현실(AR) 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글로벌 투자 컨설팅 업체인 마인드 더 브릿지 및 2080 벤처스(와) 각각 국내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채윤정 기자

KT 파트너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KT가 설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 납품대금 995억원을 조기 지급해 중소 파트너사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섰다. KT그룹이 중소 파트너사 납품대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KT 커머스, KT 엔지니어링, KT MOS 납부, 이니텍, 케이뱅크, H&C 네트워크 등 6개 KT 계열사도 동참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설에는 KT와 KT계열사들이 총 756억원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채윤정 기자